



경륜에서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실력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단신 스타들. 왼쪽부터 이태호(170cm, 특선급), 이진원(160cm, 우수급), 이찬원(169cm, 우수급), 김다빈(168cm, 우수급), 이인우(169cm, 168cm, 우수급), 기교파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김다빈, 이인우처럼 선행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고, 46세 베테랑 안효운은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폭발적인 젓히기가 트레이드 마크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임채빈 등장 후 170cm 이하 단신들 대세로!

테크니션 이태호 최근 10연속 입상  
이진원·이찬우 우수급 단신 강자들  
김다빈·이인우 선행에 강한 단신들  
46세 안효운은 폭발적 젓히기 일품

65연승의 경륜 최강자 임채빈(수성 169cm)의 등장 이후 최근 임채빈처럼 신장 170cm이하의 단신 선수들이 특선, 우수급에서 주축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특선급을 보면 우선 최고의 테크니션맨 이태호(신사, 170cm)가 있다. 최근 임채빈 못지않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태호는 7개월간 공백기 끝에 돌아왔다. 이태호는 강추이 있는 편성에서는 몸싸움을 피하지 않으면서 뒤를 노렸고 종종 선행, 젓히기도 구사하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5월 20일 광명에서는 짝꿍 젓히기 우승으로 쌍승 57.8배, 삼쌍승 128.4배의 이변을 일으켰다. 6월 17일에도 슈퍼특선급이었던

정하늘의 선행을 내선에서 받아 추입까지 연결시키며 팬들에게 쌍승 10.0배, 삼쌍승 55.7배를 선사했다. 다음날에도 정하늘과 접전 끝에 간발의 차이로 2착하는 등 6월 17일 이후 10연속 입상을 하고 있다.

이태호의 신사팀 후배 정충교(166cm)도 흡사한 경기운영으로 1월 14일 쌍승 222.4배, 삼쌍승 647.0배의 대박 우승을 했다. 올 시즌 31전에 1착 3회, 2착 4회, 3착 12회를 해 승률 9%, 연대율 23%, 삼연대율 61%를 기록하고 있다.

### ●우수급은 이진원 이찬우 김다빈 이인우 급 성장

우수급의 기교파 이진원(김포, 160cm), 이찬우(청주, 169cm)도 대표적인 단신 선수이다. 경륜 최단신 이진원은 지난해 9월 특별승급으로 우수급에 진출해 1착 2회, 2착 5회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올 시즌 5월 14일 쌍승 162.1배, 삼쌍승 720.8배의 대박 우승을 비롯해 41회 출전에 1착 9회,

2착 13회, 3착 7회를 거뒀다.

이찬우는 최근 8경기 중 15일 광명결승, 28일 부산결승을 제외한 나머지 6경기에서 추입 5회, 젓히기 1회로 8월에만 6승으로 월간 최다승자가 됐다.

우수급의 26기 김다빈(등광주, 168cm), 이인우(세종, 169cm)는 많은 단신 선수들이 기교에 능한데 비해 선행에 강점이 있는 신인들이다. 지난해 선발급에서 적응기를 마치고 올 시즌 우수급으로 올라온 김다빈은 3월부터 승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이 기간 선행입상 14회, 젓히기 입상 6회로 선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인우는 우수급 데뷔가 김다빈보다 6개월 늦어 7월 1일 선행 3착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3일 일요경주에서 젓히기로 김종력을 제치고 빠르게 우수급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해 광명에서는 금요일 선행 2착, 토요일 선행 4착, 일요일 젓히기 3착을 기록했다.

이밖에 46세 베테랑 안효운(인천, 168cm)

도 경륜의 단신 스타에서 빼놓을 수 없다. 9개월 만에 선발급으로 복귀한 안효운은 가볍게 특별승급에 성공하더니 4월 29일 우수급 첫 시험에서 특유의 젓히기로 우승했다. 안효운은 나이가 무색하게 폭발적인 젓히기가 일품이다. 현재 우수급 성적은 31전에 1착 10회, 2착 7회, 3착 3회에 승률 32%, 연대율 55%, 삼연대율 65%이다. 10회 우승 중 젓히기가 6회, 추입이 4회다. 조금만 힘을 내면 최고령 특선급 등극도 가능할 전망이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주 팀장은 “비선수 출신 최초의 그랑프리 우승자로서 지난 광명에서 실력발휘를 하기 시작한 박명하(170cm), 호남권의 김기범(168cm), 김아남(169cm), 강재원(169cm), 최원재(168cm), 우수급 자유형 강자 천호성(168cm), 최창훈(170cm) 등도 단신의 매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배정환 경주사업총괄본부 간선화추진실장(오른쪽)이 강옥희 광명Y MCA 사무총장과 참여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프로그램 개회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7일 광명스피드 광명홀에서 청소년 심리치유 지원사업인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했다.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은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에 과몰입한 소외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과 체육활동(자전거 교육, 라이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말까지 118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 심리교육 등의 심리치료 과정과 자전거 교육을 실시한다.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은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회에 걸쳐 자전거 조립, 주행, 안전에 관한 기초교육과 단체 라이딩을 진행한다. 이명규 경륜경정간선화본부장은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 미사경정공원 17억 투입 안전보강 공사 착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주사업총괄본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맞춰 미사경정공원 안전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7월부터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등(147개), CCTV(113개), 안내 스피커(128개) 등을 추가 설치한다. 11월까지 완공 목표다. 미사리 조정호 수변 인명구조 안전시설물도 확충했다. 구명부우 24개를 추가해 장비 간격을 250m에서 125m로 대폭 줄였으며 구명환, 구명조끼, 투척로프로 구성된 인명구조장치 보관함과 안전난간 위험표지판도 확대 설치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오늘(31일)의 경기 예고	
<b>프로야구</b>	KIA-한화(대전), 롯데-기움(고척), NC-LG(잠실), 두산-K(수원), SSG-삼성(대구·이상 18시30분)
<b>축구</b>	K리그2 : 충남아산-경남(19시·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 서울E-대전(목동종합운동장), 김포-안산(김포솔터축구장·이상 19시30분)
<b>농구</b>	KB국민은행 박신자집(11시·청주체육관)
<b>골프</b>	허정구배 제68회 한국아마추어선수권대회(남서울트리클럽)
<b>야구</b>	봉황대기 전국고교대회(11시30분·목동구장)
<b>사격</b>	한화회장배 전국대회(9시·창원국제사격장)
<b>육상</b>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TF 전국실업경기 챔피언십(18시·익산종합운동장)
<b>테니스</b>	대구국제남자대회(유니버시아드코트), 영월국제여자 1차대회(영월스포츠파크), 양구국제주니어대회(양구테니스파크)
<b>핸드볼</b>	전국중고선수권대회(11시·김천체육관)
<b>볼링</b>	제4회 케겔컵 프로대회(12시·안산 더킹볼링경기장)

## 수요일 1일차엔 후착권 변수 많아 맹신 금물

### 수·목 경정 예측 전략

2일차엔 1일차 결과 과신하다 낭패도  
기량 평준화...입상 가능성은 폭넓게

경정은 매주 수, 목요일(1일차와 2일차) 각각 17경주를 운영한다. 요일에 따라 경주를 예상하는 기준이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다.

수요일 1일차는 출전하는 선수와 모터의 기력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를 추리하게 된다. 화요일 지정훈

과 확정검사의 결과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모터의 기록이 더 빠르고 공격적인 움직임은 선보인 선수에게 힘이 실리는데, 실전과는 편차가 있어 맹신은 금물이다.

34회차 수요일 10경주를 보면 경주 전 소개항주 타임이 6.79초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이며 코스 이점과 기량에서 앞선 최재원이 축으로 인기를 모았다. 조규태는 화요일 확정검사에서 평균 7.00초라는 저조한 기록으로 전체 72명 중 62위의 최하위권 기록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승을 기대한 최재원은 스타트에서 감속을 하면서 초반 경쟁에서 밀려났

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스타트 승부에 나선 조규태가 인빠지기로 우승했다. 이날 경기는 결국 쌍승식 22.7배와 삼쌍승식 102.9배로 마감됐다.

우승 후보들이 제몫을 해주더라도 후착권에서 변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수요일 4경주는 6코스 출전해 인기순위 5위였던 문주엽이 입상하면서 쌍승식 31.5배와 삼쌍승식 145.0배가 나왔다. 14경주는 인기순위 5위였던 김경일이 2위로 입상해 쌍승식 16.9배와 삼쌍승식 165.4배를 기록했다.

반면 2일차는 1일차 결과물에 대한 믿음과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 목요일 9경주는 1코스를 만난 강영길과 기량이 우수한 3코스 류석현의 우승 경쟁이 예상됐다. 강영

길은 수요일 2, 3착을 기록했고 류석현 역시 입상의 한자리를 빼탈 수 있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경주에선 강영길의 어중간한 인빠지기와 류석현의 무기력한 공간 침투를 틈탄 황이태의 역습이 이변을 일으켰다. 여기에 과감하게 휘감아짜른 정경호가 2착으로 올라서면서 쌍승식 62.6배와 삼쌍승식 248.5배의 폭탄배당이 나왔다.

경정 패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모터 또한 최하위권의 열성 모터가 아닌 이상에는 입상 가능성을 폭 넓게 열어둬야 한다”며 “올해 고배당이 속출하고 있으나 매 경기 변수가 나오는 것은 아닌 만큼 무리한 이번 전략 위주보다는 효율적인 베테랑전을 찾아야 한다”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 생활체육

## 3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데이런 2022’

10월16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대한체육회, 총5000명 선착순 접수

대한체육회가 국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 2022’를 10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최한다.

‘올림픽데이런 2022’는 전 연령이 참가 가능한 스포츠 행사로 사전예매는 공식사이트(www.olympicday.co.kr) 및 러너블 앱을 통해 하면 된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데이런 2022’는 ‘평화를 위한 움직임(moveforpeace)’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운동의 일환이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포츠 축제로 펼쳐질 예

정이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 마라톤(5km/10km) 대회 외에도 올림픽 스포츠 종목 체험,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버스, 올림픽 스타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 팀코리아 NFT 체험,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 등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비는 3만 3000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노스페이스 티셔츠와 타투스티커, 스포츠 짐백, 오프이셔져진 스포츠 용품 등 기념품이 포함된 ‘올림픽데이런 키트’를 증정한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기념 메달’과 IOC 위원장 및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참가확인서가 제공된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 노스페이스, 나이버, 오픈리, CJ제일제당, BBQ, 풀메이드, 롯데홈쇼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물 및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 “학생선수 학기중 대회 참가 제도 보완 지지”

“학습권 보장·지도자 처우개선 공감”  
대한체육회, 실효성 있는 정책 약속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 선수 대회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다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위 권고는 학생선수, 학부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된 바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함께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의 실효성과 부자율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이르면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